

생활 속 물품을 분실하지 않는 초소형 GPS 스티커에 대한 제안

이재훈*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e-mail : uiop145845@naver.com

A Proposal for an Ultra-small GPS Sticker that Prevents the Loss of Every Items

Jae Hun Lee* Dong Uk Cho*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어느 식당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간단한 립스틱이나 중요한 자동차 키, 지갑, 휴대폰 등을 분실하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가는 물품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GPS와 계정연동이 가능한 스티커의 개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편의상 계정연동 시스템이 칩전용 사이트로 위치가 파악하는 것을 계정연동 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1. 서론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때때로 가벼운 립스틱이나 중요한 지갑, 여권, 휴대폰, 차키 등과 같은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실시간 GPS가 되게 만들어서 만일 휴대폰을 분실했을 시 분실 위치가 음식점인지 길거리인지 어느 곳에서 분실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휴대폰 뒷면에 GPS 스티커가 붙어져 있다면 집에 돌아와 칩전용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반도체 특성상 부품 자체의 가격은 싼 편이라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다이소같은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고가의 지갑이나 아이의 가방에 붙여둔다면 집에서 아이의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스티커를 아래 (그림 1)[1]과 같이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는 애니메이션 스티커나 혹은 성인들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 연예인 굿즈 스티커같이 혹은 연예인 커플 사진 등 사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나이대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스티커

2. GPS스티커의 자세한 설정

기존에는 물품을 분실했다면 찾을 방도가 전혀 없었다. 만일 분실물을 습득하여 해당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여도 주인을 모른다면 찾을 방도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GPS스티커에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면 분실물을 잃어버린 경우 사이트에 자신이 로그인과 연결된 스티커의 번호 예로서 'A123' 과 같이 입력을 한다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물품을 습득한 경우 스티커의 번호를 'A123' 사이트에 분실물 찾아주기에 입력한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정보공개에 동의했다면 전화번호 혹은 비상연락망을 기록해 두어서 가게 사장님이나 혹은 길가던 행인이 주웠을 경우 현재 일상생활보다 편리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이라면 지갑을 습득한 경우 주변 우체통이나 경찰서로 직접 가야 했지만 길거리에 우체통이 있는 경우 혹은 근처에 가까운 경찰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실제 다음 (그림 2)와 같이 애완동물 무선 추적GPS 같은 경우[2] 42*40*10mm의 크기로 시중에서 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휴대폰 뒷면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나 지갑 안에 넣어둘 수 있는 명함처럼 여러 형식으로 만든다면 명확하게 분실물의 비율도 낮출 수 있으며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본 연구자가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곳에서 하루 평균 8개의 분실물이 들어오며 각종 립스틱, 가방, 자동차 키, 신분증 등 여러 가지의 분실물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그림 2.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애완동물용 GPS

3. 실험 및 고찰

실제 2016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하루 분실물이 하루 평균 435이고 가장 많이 분실하는 물건은 휴대전화였다. 이처럼 대중교통 혹은 길거리나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두고 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녀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들어가 당일 날짜를 검색해 본 결과 하루 평균 230개의 분실물이 올라와 있었다. 달리 말해 하루 평균 230개 이상의 분실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양심’을 주제로 지갑과 현금 등을 길거리에서 일부로 흘리는 몰래카메라를 실행한 영상이 있는데 한국인의 85%는 주인에게 다시 떨어진 물품을 돌려주었다. 이와 같은 시민의식은 떨어진 물품의 주인을 안다면 평균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돌려줄 방법이 없는 관계로 GPS스티커가 있다면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분실물을 돌려 주는 것이 가능하다.

4. 결론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사이트와 GPS 등 여러 성능의 스티커를 만든다면 분실물을 보다 빠르게 찾고 스티커의 비용도 분실되는 물품의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어디서나 쉽게 간편하게 구하는 GPS스티커로 자신의 물품이 도난당할 걱정이 없으며 분실된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통해 잃어버린 위치와 GPS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을 다른 사람이 습득한 경우 주인을 빠르게 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1] 네이버 쇼핑물
- [2] 알리 익스프레스 쇼핑물